

합격수기

제49회 공인회계사 수석

오 현 지 회계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오현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영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CPA 시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입학 당시에도, CPA 공부를 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특히나 새내기 시절이 끝날 무렵에는 동기들 중에서도 CPA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다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에 시험 준비를 영접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에 입학하여 1년간 어느 하나에 열정적으로 몰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큰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고된 생활을 하여 생활습관이나 자세를 고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습관이나 자세가 많이 개선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경영학에 대해 흥미도 느끼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경영학과'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어 시험을 준비하게 된 데에 적어도 후회는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합격 발표순간이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이렇게 합격하게 되어 기쁘고 열렬합니다. 한편 앞으로 모든 것에 임할 때 시험을 준비했던 순간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년 반의 수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시험 준비] - 1회독

1차 시험 준비기간에는, 친구의 추천으로 미래경영아카데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 CPA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겨울방학 때 우선 회계원리를 인터넷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최창규 선생님의 회계원리.)

2학년 1학기에는 학교에서 중급회계, 관리회계 등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김용남 선생님의 원가회계) 또한, 회계과목 다음으로 CPA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 세법이라는 말을 듣고, 세법강의는 수업이 끝나고 저녁 무렵 학원에 가서 수강하였습니다. (이승철 선생님의 세법)

학교와 인강을 병행하는 이 시기에는 동기 친구 한 명과 페이스를 맞추어가며 서로 진도를 확인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CPA 공부량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듣지 못한 과목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몰아쳐서 듣자는 것으로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6월 말~8월달까지 재무관리, 상법을 중심으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거시경제학과 고급회계는 들을 수 있는 데 까지 듣기로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김현식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김종길 선생님의 재무관리, 오수철 선생님의 상법)(김관기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김현

식 선생님의 고급회계)(김현식 선생님의 중급회계)

[1차시험 준비] - 2회독

2012년 8월, 즉 약 반년의 시험준비기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대부분 인강을 듣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조건 완강을 목표로, 모든 과목을 한번씩 훑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8월 중간부터 시작된 학원의 심화종합반 수업을 통해 각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혼자 공부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학원으로 가고, 저는 학교, 집, 도서관 등 장소를 바꾸어가며 인터넷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인터넷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통학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1학기 때 학원을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이만큼 피곤할 정도로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거야' 라는 매너리즘에 빠진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강의를 들으면 순 공부시간을 늘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강의는 배속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들을 경우, 오전 수업이 오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일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8시반~ 세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번갈아 공부/ 10시~ 세법 정리노트 복습->세법 주관식 문제 다시 풀어보기+ 예습/ 2시~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가 끝난 후 강의에 대한 짧은 복습 및 노트 정리. 이 시기에 전반적인 이해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트정리에 집중하였고, 당장은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지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써 보면서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차시험 준비] - 3회독

11월 객관식종합반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소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닥쳐온 시험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고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공부를 해왔다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험도 코앞으로 다가온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경영학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7월달에 완강에만 급급하였던 상법과 경제학도 2달동안 손을 놓으면서 거의 백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장은 '시험문제를 맞춰야겠다!' 는 생각이 급했고, 객관식종합반의 각 과목 별 문제집을 완벽히 숙지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학의 경우에는 조금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김판기선생님의 단과강의를 함께 수강하면서 노트정리를 하였습니다. 상법의 경우에도 친구의 추천으로 김혁봉선생님의 강의를 추가로 들었습니다.

(김판기 선생님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김혁봉 선생님의 상법)

시험 직전에는 경영학의 경우나 상법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타이핑, 프린트하여 수시로 보았습니다. 재무관리나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고, 재무관리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몇 개 선택하여 따로 문제리스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경제학이나 세법은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도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2차시험준비]

2차 시험 기간은 4개월로 정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장기플랜 없이 급속도로 지나간 순간입니다. 일단, 1차 시험을 치른 후 나무경영아카데미의 동차종합반 강의를 신청하였고, 1주일 후에 바로 학원에 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때 온라인 강의가 아닌 학원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차 결과를 통보받은 후 마음이 풀어져, 혼자 공부하면 순식간에 짧은 시간이 훌 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학원에 이동이 있으면서 온라인 강의 제공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퍼링 등의 문제로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시험준비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는 신경쓰지 말고 짧고 굵게 불태워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나 재무관리 과목은 심화종합반 수업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1차를 준비하면서 세무회계 주관식 모의고사 문제를 매일 약 2~3시간 복습했던 것이 서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재무관리는 동차종합반 수업과 함께 이영우 선생님의 강의를 PMP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강의는 매우 빠른 배속으로 들었고, 문제집의 문제를 혼자 풀어보고->강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과목은 사실상 1, 2차 시험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격이 가장 큰 과목은, 아무래도 원가회계 과목일 것입니다. 따라서 커리큘럼상 3월 초반부터 진행되는 김용남 선생님의 동차종합반 강의를 충실히 듣고, 특히 강의 뒷부분에 다루는 '심화문제'를 강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혼자 미리 풀어보는 방식을 통해 원가회계부터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감사 과목은 너무나 생소한 반면에, 시간은 짧기 때문에 일단 권오상 선생님의 강의를 충실히 듣고, 노트 정리 및 스터디 가이드와 기출문제 사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동차생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과목이지만, 감사목차를 완벽히 외우고+ 주기적으로 사례를 풀어봄으로써 감각을 잃지 않는다면 60점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반 기간이 끝나고, 시험이 약 한달 남은 시점에서는 막판 정리의 느낌으로 다른 선생님의 문제집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무나 빠듯한 시간에 대한 압박감,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공부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만 같은 범위에 정리노트를 본다가나 이미 풀은 문제를 눈으로 푸는 데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매일 각 과목별로 일정 개수의 문제를 품으로써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원가회계 과목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법은 정우승, 강경태 선생님의 문제집을 풀었고, 재무회계는 김재호 선생님의 파이널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원가회계는 임세진 선생님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또한, 이번 1차 시험에서는 1교시 경영학과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험생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경영학의 범위 내에서 심도있는 응용문제가 나왔 다기 보다는 생각지 못한 부분의 범위에서 생소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김윤상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객관식 경영학 책으로 공부를 한 터라, 처음 보는 내용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행히 재무관리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하여 과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제스타일이 올해에만 해당될지, 아니면 하나의 경향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도 재무관리가 하나의 큰 과목으로 존재하고, 1차시험이 끝난 후 2차시험을 치루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재무관리 과목을 1차 시험 준비기간부터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방법으로는 학원강의와 인터넷 강의중 저는인터넷 강의를 더 선호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학시간을 줄일 수 있고, 배속이 가능하여 시간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밀폐되고 경직된,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공부를 해야 하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학교 전산실, 도서관 정보 이용실, 또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힘들었던 것은, 돌이켜보면 ‘자유롭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준비하기로 선택한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와는 달리 누구 하나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는 휴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실은 완벽히 제 자신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자유로운 시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 시간마다 제 스스로 정한 규칙적인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 못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자유를 조금이나마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맞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먹고 싶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밤에는 졸리기 때문에 일찍 자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0시 즈음에는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예 알람을 맞추어놓고 1시간정도 잔 후, 씻고 1시간 정도 다시 복습을 한 후, 잠자리에 드는 토막잠을 선택하였고,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점심, 저녁을 제대로 챙겨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졸려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에, 카페에서 빵이나 음료수를 먹으며 공부를 하거나,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면서 학원 내 카페에 파는 간식거리나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했습니다.

또 하나 애로사항은, 2차 시험기간에 ‘짧고 굵게 가자’ 는 생각에 육체적인 피로가 너무 빨리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동차종합반 중간 즈음에는 학원에 매일 가지 않고, 집에서 복습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더욱 심해져서 점심 저녁을 죽과 같은 유동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여 앉아서 장시간 공부할 때의 불편함을 다소 덜었습니다.

모든 시험의 준비과정이 마찬가지로겠지만, 일반적인 대학생활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정신없는 스케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닌, 오히려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한, 하루하루가 똑같은 데서 진이 빠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혼자 이 외로운 길을 자신만의 의지로 걸어가야 한다는 데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

요는 없고, 다만 내 스스로의 마음만 조절하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조로운 수험생활 속에서도 하루하루 배워가고,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는 소소한 성취감을 느껴가며 조용한 생활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극히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아주 작은 자극의 행복에도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보는 이름의 친구로부터 응원문자가 온다든지, 먼 길의 지하철을 타는 데 처음부터 앉아서 갈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 의미부여를 하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법을 공부하면서, 신문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든지, 부모님이 세법 문제 관련하여 이야기기를 나눌 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에서 과목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 직전에는 물론 '시험만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여야겠지만, 아직 기간이 남은 시기에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전반적으로 과목들에 대해 알아간다, 공부를 한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졸업을 하려면 5학기나 남은 만큼, 대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갈 길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길을 단아놓으면, 나중에 열어보지 않은 길을 후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1년간 회계학, 세법, 재무관리 등을 공부해오면서 경영학 전반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최종목표는 회계학이나 재무, 세법 과목의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경험도 하고, 대학원을 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한편, 현재 대학에 입학하여 경영학과 같이 다른 과목을 깊이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이번 준비기간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도 싶습니다. 사실 CPA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경영학과 전공 학생임에도 경영학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학문인지 의구심을 느낄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알아가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들 CPA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다를 것이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이라든지, 전반적인 성향도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이 따로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마치 절에 들어간 수도승과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마구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룹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CPA 시험을 공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 방대한 양 때문에 느끼게 되는 조급함, 이 시험을 준비하기로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안함 등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시험이 한두 달 남은 상황 이전에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기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자신만의 생활습관은 지키되, 아직 못 들은 과목이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히려 조바심을 갖지 않고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다보면 슬럼프를 맞닥뜨리지 않고 좋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현지님의 과목별 참고도서]

1차시험

회계학: 김현식, 최창규, 신현걸 <중급회계> <고급회계> <객관식재무회계>

김현식, 최창규, 신현걸, 노준화 <정부회계>

김용남 <원가관리회계><객관식 원가관리회계>

세 법: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 이승원, 이승철 <객관식세법>

경제학: 정병열 <경제학연습(미시, 거시)> 김판기 <객관식 다이어트 경제학>

상 법: 오수철 <오수철 상법> <객관식 상법> 김형복 <회계사 상법신강 (서브노트)>

경영학: 김운상 <객관식 경영학>

김종길 <재무관리> 이영우 <객관식 재무관리>

2차시험

재무회계: 김현식, 최창규, 신현걸 <재무회계연습> 김재호 <재무회계 모의고사>

세무회계: 이승원, 이승철 <세무회계연습> 정우승 <세무회계연습> 강경태 <세무회계연습>

강경태 <세무회계리뷰>

원가회계: 김용남 <원가관리회계연습> 임세진 <원가관리회계>

재무관리: 김종길 <재무관리연습> 이영우 <고급재무관리연습>

회계감사: 이창우, 송혁준, 전규안, 권오상 <회계감사 studyguide>